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7월 7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 원	담 당 자	• 수질보전과장 이현주 ☎440-5501 • 담당자 양해원 ☎440-550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여름철 대비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
- 수인성·매개감염병 원인균 집중 검사로 먹는 물 안전성 확인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철을 맞아해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 수질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약수터는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먹는물공동시설로, 인천지역에는 6개 군·구에 30개소의 약수터가 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위해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연 3~8회보다 확대한 연간 12회의 약수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되는 7월에는 먹는물수질기준 검사항목에 더해 수인성·식품매개 질환의 대표 원인균인 살모넬라, 쉬겔라를 추가적으로 검사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살모넬라 :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 식중독이나 위장염을 일으킬 수 있음

※ 쉬겔라 : 가축 대소변 등에 의해 오염된 물에서 감염되는 병원성 세균으로, 전염성이 강하며, 이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중독균

매월 진행되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 시스템 (<http://air.incheon.go.kr>)에 공개되며, 안전한 음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및 건강한 약수터 이용법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반드시 약수터 안내표지판에 게시되어 있는 수질 성적서를 확인하고,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음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록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지만 약수터 이용 시 개인 컵 사용과 같은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참고> << 약수터 이용 안내>>

◆ 약수를 안전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 (약수터에서)

- 찾아가시는 약수터 주변 청결은 내가 먼저 실천해주세요. 약수터에서의 기본 환경 예절이 깨끗한 약수를 드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 비가 내린 뒤 주변 동물들의 배설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어 비가 많이 온 후 **2~3일간**은 약수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온 후 약수가 증가하면 음용을 자제해주세요. 건수(비온 뒤 일시적으로 솟아나는 물)의 유입으로 세균, 탁도 등의 일시적 부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약수터에 게시된 **수질검사 성적을 꼭 확인** 하여,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 시에는 음용을 중지하시고 검사결과 적합 판정 후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약수를 안전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 (가정에서)

- 약수를 채수하시는 용기는 꼭 집에서 세척하여 주세요. 약수터에서 약수물로 약수통을 세척하는 일은 삼가 주세요. 청결하지 못할 경우 세균에 오염된 약수를 마시게 됩니다.
- 약수를 1주일 분량(약 20리터 1통) 정도만 채수해주세요. 실온에서 오래 보관 할수록 미생물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 채수하신 약수는 **가능한 1주일 이내에 마시고**, 여름철에는 수인성 식중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끓여서 식힌 후 냉장 보관하여 음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때 냉장 보관 용기는 유리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물맛을 유지하시는데 좋습니다.